

기후구분에 대한 고찰

- 중·고교의 지리교육과 관련하여 쾨펜의 기후구분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Climate Classification on the Geography Education

강대균(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geo@daehan.ac.kr)

천재호(서울 청원고등학교, sanddune@hanmail.net)

언론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한 글이 실리기도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한 기후 관련 기사는 일상에서 기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도 지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구실을 한다. 그러나 이들 기사에 담긴 내용은 물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구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이슈화한 '우리나라의 아열대화'를 계기로 기존의 기후구분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기후구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열대 기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이나 대개의 경우 쾨펜의 기후구분과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지리학자인 스트랄러는 1월 평균기온 5℃ 이상의 지역을 아열대 기후로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의 동남부 지역과 중국의 화이난 지방, 일본의 큐슈, 시코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1990년대 이후 온난화가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평년값(1971~2000년)이 과거 평년값(1961~1990년)보다 연 평균기온에서 0.2~0.5℃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겨울철에 가장 커서 1월 평균기온이 대구·포항·서울이 0.9℃, 부산이 0.8℃나 올라갔다. 그러나 추풍령은 연 평균기온의 상승이 0.1℃ 미만으로 대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아직도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10℃ 이하의 추위가 엄습한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후와 식생의 내용이 「Ⅱ. 국토의 자연환경, 1. 기후와 생활」 단원에 포함되어 있다. 기후와 식생의 구분이 동일한 단원에 배치된 것은 양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식생은 기온과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쾨펜의 기후구분은 식생의 분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와 식물의 지리적 분포의 부합원리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조차 기후구분과 삼림분포도에 사용된 용어에 차이를 보인다.

쾨펜의 구분에서는 수목기후를 기온에 따라 A, C, D로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C 기후와 D 기후가 나타나며, 이 두 기후대를 나누는 기준은 최한월 평균기온 -3℃ 등온선이다. 그리고 흔히 C 기후는 온대기후, D 기후는 냉대기후라고 부른다.